

대구대학교 교수회 통신

제8대 제7호 | 2023년 6월

〈 차 례 〉

1. 〈논단(1)〉
2. 〈논단(2)〉
3. 〈자유 기고문〉
4. 교수회 활동 보고
5. 장기근속 교원 안내
6. 공지 사항
7. 단과대학 평의원 명단

논단(1)

“대구대학교 평의원회의 기능과 역할”

황인조(환경기술공학과 교수, 대학평의원회 의장)



대구대학교 평의원회 의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환경기술공학과 황인조입니다. 2년 전에 대학평의원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도 모르고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의장으로 봉사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6와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 제 32조 등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평의원회는 교수회 주관에 의해 선출된 교원 6명, 직원 평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직원 3명, 조교 1명, 학생 2명,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2명 등 총 14명의 평의원 (임기는 2년)으로 구성됩니다.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자문입니다.

저는 평의원회 활동을 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이 대학의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학의 주요 정책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후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기간과 교무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평의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너무 급하고 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평의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할 시간이 너무 없게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학 본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일정에 쫓겨 안

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평의원으로서 지금은 의장으로서 요청드리는 부분이 회의 자료는 회의 전에 미리 공지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의원회에서 심의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는 일정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 입니다. 아직도 대학의 모든 정책들이 교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심의·결정된 후 평의원회에는 형식적으로 상정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의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부 평의원 두 분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항상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대구대학교 평의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평의원회의 구성을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학부모 2명 (대학생 학부모 1명과 대학원생 학부모 1명)을 더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 본부 보직자들, 우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분들 모두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십니다. 대구대학교 평의원회 역시 우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좋은 쓰임이 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논단(2)

“진량벌 개구리들의 함성이 그리워지면 ”

허영은(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정년을 앞둔 교수로서의 글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난감했다. 생각해 보니 사실 나는 정년 후에 어떤 삶을 꾸려가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 나의 교수 생활을 돌이켜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청탁을 받고 글을 써야 하니 비로소 아, 이제 나의 대구대 생활이 끝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

나는 대구대에서 어떤 삶을 보낸 걸까? 그저 매일매일 수업을 하고 학생들과 어울리다 방학을 맞이하고, 그렇게 지내는 세월이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30년? 정말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다고? 그때가 언제였지? 하며 30년 전 내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Episode 1]

1992년 6월 말 대구대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캠퍼스는 전날 온 비로 온통 진흙탕이었다. 모처럼 빠입은 투피스와 구두에 진흙이 묻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걸었던 기억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로 꼽히는 대구대 캠퍼스를 보면 과연 이런 때도 있었을까 상상이 잘 안되리라 생각된다. 어쨌든 강렬한 인상의 캠퍼스에서 긴장 속에 면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진량벌의 논에서 개구리들이 우렁차게 울어댔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내가 기억하는 대구의 첫인상은 6월의 살짝 후텁지근한 공기 사이를 뚫고 들판으로 울려 퍼지던 개구리의 우렁찬 울음소리였다.

[Episode 2]

대구대에 온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일이다. 서울에서 온 친구와 함께 이 지역에

서 유명하다는 팔공산 갯바위를 올라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갯바위 가는 길에 우연히 학생을 만났다. 그 학생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친구 왈 “애, 재가 선생 같다.” 역시 내 친구 맞네!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인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아직 선생으로서 자리를 못 잡았던 내 모습을 친구는 용케도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서른 초반의 나이로 부임한 나는 “내가 너희들 선생이 거든!”을 모토로 교재는 어려운 원서에, 시험도 학생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지경의 눈높이 교육은 안중에 없는 초짜 교수였다.

[Episode 3]

얼마 전 학생들 몇 명이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다. 마침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실린 늘푸른 테마공원의 밀밭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로 가자고 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약간 머쓱해하면서 조심스레 스티커사진을 찍고 싶다는 것이다. 나도 왕년에 스티커사진 좀 찍어봤거든. 근데 웬 스티커사진? 학생들이 약간 올드 스타일이네,, 하고 생각하면서 갔다. 그런데 웬걸? 요즘 스티커 사진은 온갖 현란한 머리 장식에 갖가지 포즈, 게다가 동영상까지 찍혀 나오는 게 아닌가. 신문물에 환호하면서 다양한 포즈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멋진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대구대에서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결국 모든 에피소드는 학생들로 귀결되는 것 같다.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초짜 선생이나 변화하는 신문물에 적응 못하는 구닥다리 노교수나 늘 해맑은 미소로 반겨주는 학생들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이제 곧 진량별에 개구리들의 합창이 시작되겠지? 앞으로 개구리들이 힘차게 울어대는 시기가 오면 대구대와 우리 학생들의 밝고 힘찬 에너지가 많이 그리워질 것 같다.

자유 기고문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가연(경영학부, 교수회 부의장)



내가 대학교 3학년이었던 1989년, 그해에는 좁은 캠퍼스이긴 하지만 이쪽 편에서는 국가보안법철폐와 주한미군철수, 양키고함의 구호가 울려 퍼졌고, 저쪽 편에서는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노동해방운동이 필요하다는 외침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취업준비를 위해 토플공부와 상식책을 쌓아놓고 열공모드의 기운이 함께 배출되던 시기였다.

이때 나는 신경도 쓰지 않아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000을 돌파했고, 내가 수강했던 전공과목의 교수님은 주주 자본주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셨다. 교수님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규율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고, 그래서 “주식회사제도에서 종업원들도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노동도 더 열심히 하고 그에 따라 기업의 주가상승으로 개인적으로도 부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그 당시 40대 젊은 교수님은 선진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원리 특히나 주식회사, 주식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일깨우기 위해 애쓰셨다. 나는 이때 순진하게도 이러한 주주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지주(주주)로 만들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곧 그렇게 될 것만 같았다. 노동자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세상이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다.

몇 년이 흐른 후 막상 내가 종업원이 되었던 90년대 초반까지도 종업원이 주주가 되는 상황은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다. 그저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약간의 상승을 맛보며 소액의 차익실현 기쁨을 느낄 뿐이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

기가 발생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주가는 반토막 보다 더 폭락하였다. 역시 종업원이 주주가 되어 지주행세 하는 건 힘든 건가 싶었다. 이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000을 회복한 것은 2005년이 되어서였다. 시간은 흘러 2020년 이후 게임회사, 카카오뱅크, 빅히트(현재 하이브)의 종업원들이 주주가 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제 성숙한 자본주의 시대가 된 건가 싶다. 물론 이때 광풍처럼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이른바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도 있고, 2023년 현재 일부는 주식시장을 떠나고는 있지만 젊은 세대 투자자는 시야가 넓어졌다. 대학생 및 20, 30대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과 해외 주식시장, 더 나아가 다양한 자산투자에 대해서 거침없이 참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엔 다양한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 제도변화와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바탕을 이루고는 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환경에 쉽게 적응하여 뭐라도 해볼려고 한다. 다만 그들은 투자 경험이 없을 뿐이다.

나는 대학교 이후 경영학 중 재무분야를 전공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기간동안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한 발 더 깊숙이 적응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시장규제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는 있다.

현대 경영학에서 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친화적인 정책들과 환경들이 조성되는 것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체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인 경쟁심화와 불평등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혹은 개선해야 할 점들은 늘 회자되고 있다. 사실 경쟁심화로 발생하는 실패자들에 대한 재기 프로그램이 활발해야 하고, 불평등에 대한 안전망의 설치가 필요하기는 하다.

8~90년대는 주주자본주의 시대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주주자본주의, 소액주주운동 등이 진행되었다.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주주자본주의 보다는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영을 강조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익추구 즉 적어도 적자는 면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소비자에 대한 책임, 종업원에 대한 책임, 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책임, 지역사회 및 정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인 2020년대 부터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세 가지로 분류화하여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으로 강조하고 있다.

환경경영(Environment)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할 때 환경보호 내지는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자는 것으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한다거나,

에너지사용량을 적게 하도록 효율적인 업무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벅스에서 친환경경영을 선언하면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 사회적 경영(Social)에 대한 내용은 앞서 지속되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이를 좀더 현대적으로 접목시켜서 소비자나 종업원들에 대한 다양성의 인정을 포함한다. 즉, 남녀노소, 인종, 종교에 대한 차별이 없이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업원들의 중대재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와의 상생관계를 도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사례를 들자면, 성차별금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업 내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금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경영(Governance)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이사회 구조를 갖추고, 기업윤리를 준수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을 갖고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과 주주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기준 준수와 납세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이 있다.

2023년 6월 나는 대학교에서 이번엔 교수의 입장에 서 있다. 대략 35년 전 대학교 3학년생인 나에게 자본시장과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소개했던 교수님처럼 나도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 과거 주주자본주의, 이해관계자경영, 현재의 ESG 경영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다. 내가 속한 대구대학교는 영리추구단체가 아닌 사립 고등교육기관이지만, 혁신의 아이콘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학교도 기업 못지 않은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교도 ESG 경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닌가? 나는 학생들에게 ESG 경영을 소개하고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내가 속한 대구대학교도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ESG 경영이 현재진행형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하는 데 함께 할 것을 기대해 본다.

교수회 활동 보고(2023년 3월~6월)

- 3월 06일 : 교수회 의장단 워크숍
- 3월 07일 : 교수회평의원회 개최(개방이사 현안 보고 및 사무국장 임명)
- 3월 17일 : 교수회 성명서(개방이사 선임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 발표
- 3월 22일 : 교수회 의장단 총장 면담 보고 : 학교경영 사안 질의 토론
- 4월 4일 : 교수회통신 제8대 제6호 발간
- 4월 17일 : 제9대 교수회 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4월 19일 : 학교법인 영광학원 창립 77주년, 대구대학교 개교 67주년 기념식
의장 참석
- 5월 8일 : 교무처장 면담 : 교원소속 이동 및 전환 질의 토론
- 5월 9일 : 기획처장 면담 : 단대 편제 및 학교발전 계획 질의 토론
- 5월 15일 : 교무처장, 기획처장 면담 보고(알림톡 #23)
- 5월 30일 : 사무처장 면담 : 교내 시설 및 공간 질의 토론
- 6월 7일 : 연구처장 면담 : 교원 연구 지원 질의 토론
- 6월 8일 : 교수회통신 제8대 제7호 발간

장기근속 교원 안내

근속년수	소속	성명
35년	공과대학 생명공학과	강선철
30년	인문대학 일본어일본학과	허영은
	법·행정대학 법학부	강태원
	과학생명융합대학 화장품바이오학부	김장섭
	과학생명융합대학 화장품바이오학부	김학중
	과학생명융합대학 원예학과	박상규
	공과대학 식품공학과	이준호
25년	경영대학 경제금융학부	고강석
	경영대학 경제금융학부	이운호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이덕영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박철영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최정희
	정보통신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강병도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이효신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최성규
20년	법·행정대학 경찰학부	기광도
	법·행정대학 부동산·지적학과	박원석
	법·행정대학 군사학과	고성경
	경영대학 호텔관광경영학부	고동우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권영환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김홍석
	조형예술대학 패션학부	김소현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박남수
	AI학부	김재준

근속년수	소속	성명
10년	인문대학 문화예술학부	엄기영
	인문대학 유럽문화학과	서연용
	법·행정대학 법학부	최진원
	법·행정대학 행정학과	박길환
	경영대학 경영학부	배연호
	경영대학 경제금융학부	박승준
	경영대학 호텔관광경영학부	이광우
	사회과학대학 청소년상담복지학과	박재연
	과학생명융합대학 통계학과	황근보
	과학생명융합대학 산림자원학과	박영대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이미령
	공과대학 생명공학과	장원구
	공과대학 조경학과	이우성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문현원
	조형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박진우
	조형예술대학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정석연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권순우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김보혜
	재활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이선욱
	간호대학 간호학과	하태희
	간호대학 간호학과	오혜경
	AI학부	오유수

공지 사항

(1) 대구대학교 제9대 교수회 의장단 선거

- 입후보자

■ 의장 : 우창현(한국어교육학과)

■ 부의장 : 정소희(청소년상담복지학과), 윤재운(역사교육과)

- 일 시 : 2023년 6월 14일 (수) 09:00~15:00

- 기표방법 : 전자투표(대구대학교 설문시스템)

(2)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선출

- 김동건 이사장(전 서울고등법원장, 전 영남학원 이사장)

- 이사장 임기 2023.05.25.~2027.04.24

단과대학 평의원

(2023년 4월 30일 현재)

단과대학	회원 수	평의원
인문대	28	김봉정(글로벌언어문화학부) 민성기(글로벌언어문화학부)
법·행정대	32	고상현(법학부) 김동신(행정학과)
경영대	40	김양희(경제금융학부) 박승준(경제금융학부) 황진태(경제금융학부)
사회과학대	43	이소영(사회학과) 노성향(아동가정복지학과) 정소희(청소년상담복지학과)
과학생명융합대	29	황근보(통계학과) 사공동훈(원예학과)
공과대	50	황인조(환경기술공학과) 이미령(식품영양학과) 이우성(조경학과)
정보통신대	29	장중혁(컴퓨터정보공학부) 이강현(전자전기공학부)
조형예술대	27	박진우(산업디자인학과) 최영림(패션학부)
사범대	69	박종근(지구과학교육과) 정훈(교직부) 장혜진(유아교육과) 박진우(수학교육과)
재활과학대	25	김환(작업치료학과) 김명권(물리치료학과)
성산교양대	2	박영식(자유전공학부)
간호대학	11	강수진(간호학과)
독립학부	12	여준호(AI학부)

『대구대학교 교수회 통신』 제8대 제7호

발행인 : 양진오(의장)

편집인 : 차정호(부의장), 이가연(부의장), 노정희(사무국장)

교수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교수학습지원관 1층 1101호

사무실 053.850.5753 팩스 053.850.5754

홈페이지 <https://prof.daegu.ac.kr>